

중용의 핵심 中·和... 불성·바라밀행의 다른 이름

불교로 읽는 古典

동양학의 요체 <중용>



문광 스펀
탄허기념박물관 연구실장

붓다는 중도(中道)를 깨쳤다고 했고, 공자는 중용(中庸)이 모든 성인들의 전수심법임을 밝혔다. 불교의 중도와 유교의 중용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중(中)'이라는 이 한 글자에 동아시아학의 모든 비밀이 숨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안(正眼)을 통해 양자를 비교해 보는 것은 융합과 콜라보레이션 운운하는 현대의 지식인이라면 한 번쯤은 거쳐보아야 할 통과외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퇴계와 함께 조선유학의 최고봉을 점했던 율곡은 유학 전체의 핵심을 요약한 그의 저술 <성학집요>의 서두를 다름 아닌 <중용> 제1장으로 장식하고 있다. 즉 유교의 핵심사상을 중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자가 군자와 소인을 중용(中庸)과 반중용(反中庸)이라는 키워드로 매우 심플하게 구분했던 것에 그 근거가 있을 것이다.

동양학은 주역과 중용에 그 요체가 담겨있다는 뜻의 '역용지학(易庸之學)'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곤 한다. 주역이 점을 치는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군자(君子)'는 이라해야 한다는 말이 늘 따라붙는데 군자의 핵심은 바로 중용을 어떻게 체득하고 세상에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중국 북경 자금성 중화전(中和殿)의 용상위에는 청나라 건륭제의 친필 '윤집결중(允執厥中)'이라는 편액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이를 선명하게 반증해 주고 있다.

<중용>은 <예기>의 한 편에 불과했던 것인데 주자(朱子)가 <대학>과 함께 따로 떼어내어 <논어>·<맹자>와 함께 사서(四書)로 만든 이래로 유교의 핵심 경전이 되었다. 이미 당나라 때부터 중시되었던 것이 남송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유교의 대표경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성리학의 정립에 큰 역할을 했던 정이천(程伊川)은 '중(中)'에 대해서 '편박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여 과불급이 없는 것의 이름'이라 주석했다. 하지만 '중(中)'에 대해서는 정이천의 주석을 보기에 앞서 다음의 경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회노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 하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한다. '중(中)'은 천하의大本(大本)이요, '화(和)'는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생육될 것이다.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중용 제1장)

그렇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中)'의 본래적 의미는 회노애락의 미발(未發)이다. 즉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불생(一心不生)과 다르지 않다. 주자가 당송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로 넘어간 헤게모니를 다시금 유교로 되찾아 오려 했을 때 마음의 수련 문제에 있어서 불교의 심신수련에 대응하여 유교에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의 <중용>제1장 구절이었다. 이 감정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문제는 불교의 핵심인 마음수행에 대한 유교식의 담론이며 성리학의 기획에서 골자가 되는 것이었다.

주자는 나이 40이 되기 전에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미발과 마음이 일어났을 때 절도에 맞게 조절하는 이발의 문제에 골몰했다. 즉 중(中)과 화(和)가 불혹이전 주자의 주된 화두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미발의 중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중화구설(中和舊說)이라는 것이며, 이후에 문제를 발견하고 미발의 중과 이발의 화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요지의 중화신설(中和新說)을 입론하기에 이른다. 나이 마흔이 되면서 마음의 미발과 이발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정립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유교 경전에 대한 전면적인 주석이 붓물같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보면 주자학적 체계 역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미발의 중이 바둑판의 천원(天元)과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은 주자가 불교의 선(禪)과 화엄에 대해서 대대(待對)의 타자의식을 철저히 담자한 유학자로서 고뇌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바로 성리학이었음을 간파하고 그의 결론만을 취하기에 이른다. 성리학의 미발이발론(未發已發論)과 중화설(中和說)에 관련된 많은 담론들은 불교수행론의 자극을 받은 신유학의 반작용이자 불교의 대체물이었다.

조선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명대(明代)에 이르러 유교를 성리학과 다른 체계인 양명학(陽明學)이 발흥했다. 중국에서의 주자학과 양명학은 동일한 유교의 범주에서 논의되며 양자 모두 한족의 전통에 속한다. 대조적으로 조선에서는 주자학만이 정통이며 양명학은 이단으로 치부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는 중국과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했다.

주자학이 발흥한 중국의 남송은 한족이 남하한 수치의 시대였고 이를 이은 원(元)은 몽고 오랑캐가 건국한 왕조였다. 정통 지식인인 한족은 몽고 치정하에서 최하의 신분으로 내몰렸고 대거 드라마작가가 되기도 했다.

원나라 회곡인 원곡(元曲)은 한족 중심의 왕조에서는 사대부로서 유교를 가르치고 경전을 주해할 만한 인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새로운 문화행위였다. 원나라를 정산하고 다시 한족의 왕조 명나라가 건국하며 탄생한 양명학은 비록 주자학과 성격이 달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중화문명이고, 한족의 사상이며, 유학의 한 학파였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다. 조선은 불교국가였던 고려를 유교로 뒤바꾼 왕조였기 때문에 불교를 용인하는 것은 국체를 흔드는 일이었으며 양명학을 허락하는 것은 자칫 선불교로 회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일이었다. 이런 까닭에 중국에서는 동일한 유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조선 땅에서는 함께 병존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게



독일 베를린 공원에 세워진 유교의 시조 공자상. 공자의 손자 자사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중용>은 유교를 비롯한 동양학의 요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회노애락을 미발(未發)하는 개념은 불교가 말하는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학의 요체 담자낸 '중용' 회노애락 未發하는 것이 '中' 已發해 절도에 맞는 것이 '和' 불교 '一心不生'과 같은 의미 '마음수행의 유교식 담론' 평가

된 것이다. 조선 성리학적 입장에서 주자학은 불교를 극복한 사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중국 신유학의 입장에서 주자학은 선불교의 심학(心學)을 유교의 언어와 코드로 재탄생시켜서 중국인에 맞게 다시 디자인하여 불교를 회통한 그 무엇이었다.

이런 연유로 조선에서는 <중용>을 불교적 시각으로 해석하거나 유교와 불교를 회통하여 해석하는 방식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국의 명나라 때의 4대 선지식이었던 감산덕청(山德清, 1546~1623)과 우익지옥(藕益智旭, 1599~1655) 같은 고승은 <중용직지>라는 동일한 제목의 저술을 통해 자유롭게 유교와 불교를 넘나들며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이 두 선지식은 모두 출가이전 양명학의 학풍을 경험했고 유불융합 내지 유불회통의 사상을 전개했다.

감산은 <중용> 텍스트 전체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미발의 중과 마음이 일어난 이후의 절제와 조절인

이발의 화로 요약했다. 이는 주자가 <중용> 후반부의 주제를 '성(誠)'으로 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며 결국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근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우익은 유교와 불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유교 <중용>의 미발지중(未發之中)은 불교의 삼매에 비교해 볼 때 그 깊이가 얕은 것으로 보아 제6식의 독두의식(獨頭意識) 정도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즉, 회노애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중용>의 미발은 불교수행에서 제7식인 말라식과 제8식인 아뢰야식의 미세한 번뇌는 쉬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깊은 마음수행을 위해서는 불교의 수행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교의 미발수행도 넓은 의미에서는 방편을 열어 실상을 드러내는 개권현실(開權顯實)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용가능하고 병존 가능한 인류의 소중한 가르침임을 천명했다.

근현대 한국의 고승 가운데 성철 선사(1912~1993)는 중국의 감산과 우익에 비해서 보다 엄격하여 유불 융합적인 견해에 매섭게 반대했다. 유교의 미발의 중 정도로는 여전히 망상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단언한다. 꿈을 꾸면서도 화두가 들리는 몽중일여의 경지나 숙면 시에도 화두가 들리는 숙면일여의 깊은 무심(無心)의 경지에 비교해 볼 때 유교의 회노애락의 미발은 여전히 미세망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경지임을 선언하여 불교의 수행에 비해서 유교의 마음수행은 한참 모자란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반해서 유불선 삼교회통으로 유명했던 탄허

선사(1913~1973)는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 두 마음이 없다(天下無二道 聖人無二心)'고 하면서 유교·도교·불교 삼교의 근본이 다르지 않음을 역설했다.

삼교성인의 경지는 동일하여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경지, 우주의 시공간이 끊어진 경지, 회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경지는 모두 다른 용어의 같은 경지에 불과함을 천명했다. 이는 노자가 말한 '천하무(天下母)', 주역에서 말한 '적연부동(寂然不動)', 화엄에서 말한 '최정정법계(最清淨法界)', 선불교에서 말한 '부모미생전소식(父母未生前消息)'과 '제일구(第一句)'와 같은 의미로 이는 모두 '성(性)자리'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멸진정의 깊은 삼매도 결국 '미발'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이보다 얕은 삼매도 역시 '미발'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불교가 유교보다 마음수련의 방법과 체계가 자세하고 섬세하여 많은 중생들에게 수행의 길을 고구정녕하게 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유교의 <중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견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다.

탄허 선사는 소풍파의 동생인 소자유(蘇子由)가 <중용>의 미발지중(未發之中)과 이발지화(已發之和)에 대해서 '중(中)은 불성(佛性)의 이명(異名)이요, 화(和)는 육도만행(六度萬行)의 총목(總目)'이라고 주석한 것을 극찬하였고 자주 인용했었다. 회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미발은 곧 인간의 근본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은 유교와 불교가 결국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에 찬 언명이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이 근본자리인 중(中)에 대해서 붓다는 49년을 설하고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는 '일자불설(一字不說)'을 역설했고, 공자는 "나는 말하지 않으려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子欲無言, 天何言哉)"고 하였으니 두 성인의 도가 근본에 있어서는 불이(不二)임이 분명하다고 탄허 스님은 가르쳤다.

이처럼 유교의 대표경전인 <중용>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선승들의 견해를 비교해보자면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인간의 근본 심성(心性)자리에 있어서는 유교나 불교, 도교나 기독교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근본 자리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며 어떤 언명과 언설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탄허 스님은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과 성령(聖靈)마저도 말과 생각이 끊어지고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다름 아닌 성(性)자리요,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태극(太極)이요 각(覺)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강력 강조했다.

다름을 주장하기 쉽다. 그러나 근본이 같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렵다. 21세기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반목과 투쟁이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모든 지구상의 존재자들이 고대하는 시대이다. 인간의 근본 심성인 한 마음 일어나지 않은 자리는 불교의 무심(無心)과 유교의 미발(未發)이 결코 상이하지 않음을 알아낼 수 있어야 무애(無碍)를 자득한 불자라 할 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는 세계인의 마음의 평화에 그 일파와 오메가가 있다고 하겠다.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